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번역

붓다의 가르침 無常 “모든 것 변화한다”

2. 부처님의 인간음미(人間吟味)

부처님의 인간분석

불교를 새롭게 이해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까.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들은 법의 문제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불교의 올바른 이해와 수행을 위해서, 먼저 차분하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주시하며 깊이 자신의 본래 자리를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남에게 대해서는 인색하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의 악(惡)은 큰 바위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결점에는 적당히 눈감아 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공통된 약점이다.

여기에서 또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먼저, 붓다의 가르침, 선덕(先德)의 행적이다. 붓다의 가르침 속에 깊이 침잠하여 부처님이 어떻게 자신을 돌아다 보았으며 어떻게 인간을 음미하였는가를 물어 본다면, 거기에서 우리들은 면밀하고도 투철한 인간 분석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분석의 방법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간분석은, 마치 단층사진을 보듯 각양 각색의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래된 불교술어에 ‘오온화합(五蘊假和合)’이란 것도 붓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간분석의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존재를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색’이란 인간의 육체 즉 물질적 요소이다. 수(수)는 작용(受)과 상(상) 작용(想)과 행(행) 작용(行)과 식(식) 작용(識)은 정신적 요소이며 인간이란 이러한 다섯 개의 요소(오온)가 모여진 것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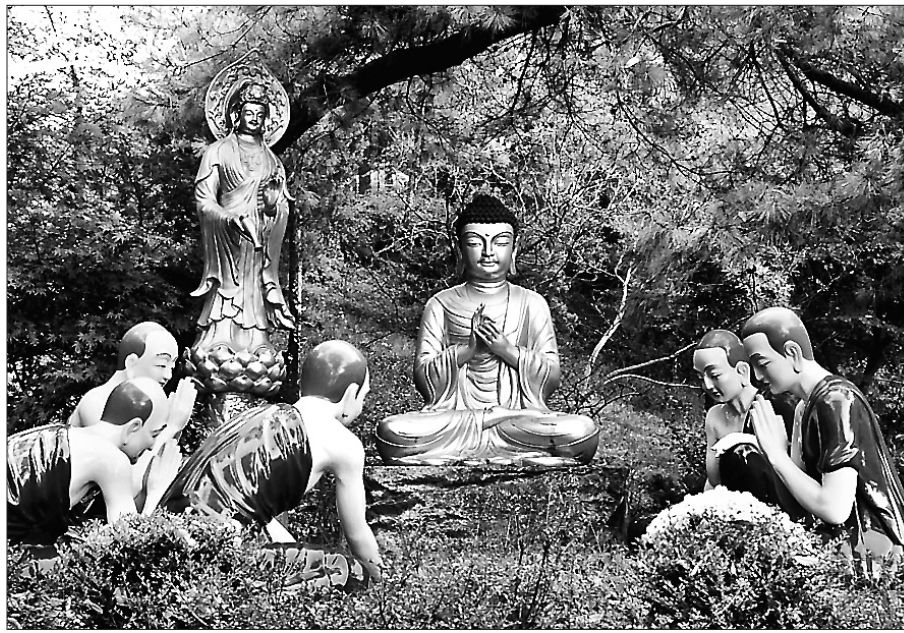
같은 상응부 경전의 ‘육처상응’ 가운데 한 경에서 붓다는 비구들을 위해서 일체(존재 일반)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적이 있었다.

“비구들이여! 무엇을 일체라고 하는가. 안(眼)과 색(色)이 아니라, 이(耳)와 성(聲)이 아니라, 비(鼻)와 향(香)이 아니라, 설(舌)과 미(味)이 아니라, 신(身)과 촉(觸)이 아니라, 의(意)와 법(法)이 아니라, 비구들이여, 이것을 이듬하여 일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 일체 이외에 다른 일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만 연설일 뿐이며 몸음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으리라.”

경전은 인식적 견지에서 말하는 존재 일반의 설명이지만 이것을 뒤집어 보면 존재 일반 가운데서의 인간의 위치, 인식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견지에서 인간을 분석하여 부처님은 눈, 귀, 코, 혀, 몸, 뜻의 여섯 가지를 들어 그것에 의해서 인간에 갖추어진 감각관과 오성의 전체를 표현하였다.

또 잘 알려져 있는 ‘12연기(十二緣起)’도 또한 부처님의 분석적 성찰이 낳은 결실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기의 계열은 그 가장 간단한 것을 말하면, 무지, 집착, 괴로움의 세 가지로 이어짐이 된다.

무지에 의해서 집착이 생긴다. 집착에 의해서 노사(老死) 등 공포장애의 괴로움이 생긴다. 그것을 더 복잡하게 하여 사지(四



수국사에 조성된 초전법륜상.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세상의 무상함을 알라고 가르쳤다.

애매모호한 추상적 관념 아닌 정확한 관찰 통해 이론 깨달음 “모든 것은 무상함을 알아라”

支, 육지(六支), 구지(九支) 그리고 십이지(十二支)의 연기가 된 것이지만 그것들은 모두 괴로울 수 밖에 없는 인간존재가 생겨나는 조건(그것이 연기라는 것이다)을 심리적으로 분석하며 추구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투철한 인간 관찰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간분석의 방법을, 교학적으로 따지면 논의한다면 자못 번잡하고 멋없는 것일 수도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들의 이해와 믿고 따르는 것외에는 아무 인연도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코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를 들면 인간은 변화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상투적 상념이 내재하고 있다.

출생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흔히 생각한다. 자본으로 나눠어진 신분과 계층이 움직일 수 없는 운명이라고 단정하기도 한다. 더욱이 상주불변(常住不變)의 핵심체로서 영혼에 대한 존재를 규정하지 않고 도저히 인간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것을 투철한 관찰과 확고한 자각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깨달음에 눈을 뜨고 앞선 경구를 돌아볼 때 그것은 항거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인간무상의 체득 위에

무상이란 잘 알려져 있듯 불교의 근본원리를 말하는 술어의 하나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꾸준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초점을 빼놓는다면 불교는 성립할 수가 없다.

부처님은 언젠가 눈곱만한 흙을 만지며 그것을 손톱위에 얹고 비구들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이만한 것일지라도 변하지 않는 꾸준한 것이 있을까?”

비구들은 즉석에서 대답하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붓다는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또 말하기를 “만일 이 손톱위의 흙만한 것이라도 꾸준하며 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 가르침은 성립할 수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무상의 원리는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하여 불교의 이해와 믿음은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 이 무상의 체득은 무엇보다 인간이라는 토대위에서 그 초점

을 집중하는 것이어야 함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된다. 꽃은 떨어지고 잎도 진다. 그것도 무상의 표현이다. 그러나 비화낙엽(飛花落葉)에 무상의 도리를 보고 언연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 무상의 체득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결코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

인간은 무상하다. 내가 변화한다. 우리들의 위에는 무엇 하나 항상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러한 체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부처님이 가르치신 마음과 몸을 바르게 하는 길에 발걸음을 뚫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인간분석은 투철함과 세밀함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심히 용의주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분석관찰의 결과를 모두 인간 무상의 체득에 결부한다. 인간의 개체적 존재는 색·수·상·행·식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물질은 무상이며 느꼈은 무상이며 상상도의지도 의식도 또한 언제나 변화한다는 것이 증명되며 가르쳐진다.

이런 것들은 교의학적인 명목으로 본다면 번거롭고 멋없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이 목적하는 바는 다른 곳에 있다. 무상의 도리는 막연한 상상이 아닌 정밀한 관찰에 둔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여 볼 때 앞에서 말한 <자설경>의 한 계승이 비로소 새로운 빛을 뽐내면서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것이다. 애매한 상상은 물러나며 정밀한 관이 물리칠 수 없는 힘으로서 우리들을 흔들며 깨우치는 것이다. 그 결론이 바로 인간 무상이다.

우리들은 이제 석존의 이 인간분석과 해석의 방법 및 결론을 조용하게 음미하면서 맛보며 배워보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불교의 전체 체계는 아주 새로운 매력으로서 우리들 앞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불교를 새롭게 이해하고 증득해야 한다.

Advertisement for the book '그냥 무조건이야' (Just Like That) by Daehungsun. It features a book cover, a quote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yunbulshop (02)2004-8216.

Advertisement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s New Student Orientation. It includes the text '서울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and details about the program, such as the number of participants (20) and the start date (March 7, 2015).

Advertisement for the 88th Buddhist Ceremony (Seonwon) for students. It lists the curriculum, including basic and advanced courses,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eonwon Education Institute.